

## 「스피노사」와 그의 思想 (2)

(그의 第三百年 誕生日 記念)

李灌鎔

「스피노사」의 時代(續)

이러한 社會 事情과 이러한 政治 □□ 아래 階級鬭爭이 激烈히 이러나지 않을 수 업섯다. 그러나 當時의 階級鬭爭은 宗教的 論爭의 衣裳을 입고 出現하였다. 現今 그 同參의 形勢를 總括的으로 觀察하면, 한편에 量으로 보아서 가장 적고 質로 보아서 當時의 智識階級을 網羅한 「아르미니우스[아르미니우스]」派와 다른 편에 小市民과 農民大衆의 支持를 맞든 「칼빈」派가 서로 對立하여 激烈한 鬭爭을 □□하여 왔섯다. 「칼빈」派의 宿命論 卽 人間의 運命은 神이 豫定하는 것이라함에 依하면, 個人의 意志的 活動의 餘地가 조금도 업고 모든 면에서 同一한 始作 하에 生存하게 되어, □□의 압에 서서는 모든 사람이 □□□이라 主張하였다. 이것이 一見에서 宗教的 人生觀에 긋치는 것이지만 □□는 거기 □□의 民主主義思想이 孕胎되어 잇는 것이다. 「아르미니우스」派는 이와 反對로 神은 人格 所有者다 卞라서 思想도 盲目的으로 바라지 안코 善者를 爲하여 惡者를 罰한다는 □□의 行爲를 하는 것이다. 卞라서 人間도 □□을 選擇할 自由가 잇서야 할 것이요, 同時에 個人의 意志的 活動 餘地도 잇서야 할 것이다. 卞라서 宗教的으로 神의 思□의 區別이 생기고 社會的으로 治者, 被治者 有□無□ 乃至 □□의 區別까지 認定하게 되는 것이다. 이 두 가지 宗教的 人生觀의 □定은 結局은 社會的으로 民本主義 對 □□主義的 □□政治의 定立 鬭爭의 變形에 不過하였고, 「아르미니우스」派의 人生觀은 □□□□의 □□□□□에게도 자못 □□한 思想이엇스며, 「스피노사」의 人生觀과 社會觀은 □和 보리니와 □□的으로 □□한 「아르미니우스」□□에 不過한 것이다. 「칼빈」派는 □人이요 □□□□에 對하여 □□을 묻쎌 되는

<이하 판독불가>